

---

## 정보가 많아서 진실이 가려지는 시대에 진실을 보는 지혜를 주는 책으로 거듭나길

안용순 · 전국국어교사모임 사무총장 · 서울 배명중학교 국어 교사

---

학생들에게 컴퓨터는 일종의 습관이 되었다. 거기에는 인터넷 전용선이 빨라져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에 대한 정보들을 바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오늘 터진 일도 서너 시간만 지나면 그것과 관련된 글을 여러 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정보가 부족한 세상이 아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에 대해 소식을 아는데 품이 많이 들어서 무심했다면, 요즘에는 너무 쉽게 알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각이 무디어져서 심드렁하기 쉽다. 한 가지 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려 하다가도 곧바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가는 상황을 보지 않으면 떠밀려 오는 정보에 휩쓸려 떠밀려 가기 십상이다.

정보가 많아서 현실을 파악하는 데 헛갈리는 시대가 되어 정보를 가려 보는 밝은 눈이 필요한 때이다. 학생들이 밝은 눈을 뜨게 하는 데 교육이 맡은 역할이 무척 크다. 그 가운데에서도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 능력을 기르는 언어 교육이 한자리를 분명히 차지한다. 우리는 언어를 가르치며 학생들이 세상의 복잡한 현상을 꿰뚫고 본질을 읽어내는 인식 능력

을 얻기를 바란다. 그러나 뜻이 있다고 해서 현실이 알아서 바뀌지는 않는 법이다.

《새국어생활》은 우리 주변의 언어 이야기를 정리한 책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고 짚어주는 친절함이 부족하다. 학생의 경우 기초부터 탄탄히 어휘 교육을 받아야 올바른 개념을 정리할 수 있고 올바른 개념을 정리해야 정확한 논리로 세상의 이치를 보는 밝은 눈도 갖게 된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토박이말들이 사라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일기 예보를 보아도 비의 종류는 강한 비와 약한 비로 한정된다. 원래 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많다.<sup>1)</sup>

안개비 - 안개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내리는 비, 이슬비 - 안개비보다 조금 짧게 내리는 비, 보슬비 - 알갱이가 보슬보슬 끊어지며 내리는 비, 부슬비 - 보슬비보다 조금 짧게 내리는 비, 가루비 - 가루처럼 포슬포슬 내리는 비, 잔비 - 가늘고 잘게 내리는 비, 실비 - 실처럼 가늘게, 길게 금을 그으며 내리는 비, 가랑비 - 보슬비와 이슬비, 싹락비 - 싹래기처럼 포슬포슬 내리는 비, 날비 - 늦날(뚝자리를 칠 때 날실로 쓰는 노끈)처럼 가늘게 비끼며 내리는 비, 밧비 - 밧발이 보이도록 짧게 내리는 비, 작달비 - 굵고 세차게 퍼붓는 비, 장대비 - 장대처럼 굵은 빗줄기로 세차게 쏟아지는 비, 주룩비 - 주룩주룩 장대처럼 쏟아지는 비, 달구비 - 달구(땅을 다지는 데 쓰이는 쇧덩이나 둥근 나무 토막)로 깃누르듯 거세게 내리는 비, 채찍비 - 굵고 세차게 내리치는 비, 여우비 - 맑은 날에 잠깐 뿌리는 비, 소나기 - 갑자기 세차게 내리다가 곧 그치는 비, 먼지쟁 - 먼지나 잠재울 정도로 아주 조금 내리는 비, 개부심 - 장마로 홍수가 진 후에 한동안 멎었다가 다시 내려, 진흙을 씻어 내는 비, 바람비 - 바람이 불면서 내리는 비, 도둑비 - 예기치 않게 밤에 몰래 살짝 내린 비, 누리

1) 김수업 선생님이 쓰신 「우리말은 서럽다」(나라말)를 보고 비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비에 대한 명칭을 좀더 알아보고 싶어 인터넷을 찾아보고 비에 대한 우리말을 정리해 보았다.

- 우박 낫은비 - 오래 오래 오는 비, 관비 - 차가운 비, 밤비 - 밤에 내리는 비, 억수 - 물을 퍼붓듯이 세차게 내리는 비.

학창 시절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바로 구름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었다. '구름은 높이에 따라 크게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으로 나뉘는데 상층운은 권운, 권층운, 권적운으로 세분화됩니다.' 구름의 이름을 익히는 데도 탄식이 절로 나온다. '구름은 높이에 따라 크게 윗구름, 중간구름, 아랫구름으로 나뉘는데 윗구름은 새털구름, 털층구름, 비늘구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설명하면 이해하기도 쉽고, 생각도 잘 난다.

새로운 시대의 우리 교육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창의성과 다양한 감성, 문화적 소양을 길러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설명이 필요하고 많은 정보 중에서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가 많아지는 시대에 진정한 정보를 찾아 낼 수 있게 해주는 쉬운 설명 또한 필요한 시기이다. 학생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길러주고 배울 것을 선택하는 능력, 그것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길러줌으로써 평생을 주체적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새국어생활》은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탐구하고 자기화할 수 있도록 우리말을 교육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학창 시절에 하는 공부는 많지만 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 '말 공부(언어 교육, 어휘 교육)'이다. 말 공부를 잘하면 생각하는 힘이 커지고, 생각하는 힘이 커지면 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학생들이 모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책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비중을 두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파악하며, 통찰력 있는 눈으로 갈피를 잡아주는 지혜를 주고, 우리말이 나아가야 할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알찬 통로가 될 것이다.